

의성 '노지 스마트농업' 245억 투입한다

김병태 | 승인 2023.07.02 17:10

농어촌공사와 시범사업 MOU
한지형 마늘재배단지 조성키로
사곡면 일대 2025년까지 추진

의성군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의성마늘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관수기반 조성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의성은 올 초 농림축산식품부의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에 선정돼 2025년까지 245억원(국비 167억, 지방비 78억)을 투입해 사곡면 오상뜰 일대 82ha에 지능형 스마트 관수시스템, 스마트 농기계 등 시설과 장비를 5G 통신망과 연계한 한지형 마늘 재배단지를 조성한다.

군은 농업 현장에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밭작물 스마트농업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주수 군수는 "농업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지 스마트농업의 혁신적인 개념과 기술을 도입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병태